인터넷에서의 저작권 교육이 저작권 윤리의식, 도덕적 판단과 침해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주연† · 정승민††

요 약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저작권 교육이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사용자의 윤리의식과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직접적인 온라인 저작물 침해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설문을 통한 실증적 연구분석 결과, 저작권 교육은 저작권 침해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옳지 않다는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도덕적 판단에 의해 실질적인 침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침해의도에 대한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저작권 교육은 저작권에 대한 윤리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교육은 학생들의 저작권에 관한 윤리의식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터넷 활용에 있어 윤리적인 태도, 침해행동에 의해 파장될 수 있는 문제점 인식 등 다양한 접근법과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인터넷 저작권교육, 저작권 윤리의식, 도덕적 판단, 저작권침해의도

The Effect of Copyright Education on Ethical Consciousness, Moral Judgement and Piracy Intention

Park, Jooyeon† · Jung, Seungmi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Internet copyright education on ethical consciousness, moral judgement and piracy intention in Internet copyright. The result of empirical research shows that Internet copyright education effects on piracy intention through moral judgement in order to make a right or wrong decision about the actual piracy behavior. On the other hand, the internet copyright education does not effect on ethical consciousness and piracy intention directly. This result implies that internet copyright education do not actually impact on the attitude and consciousness of online piracy, and that right understanding and proper internet ethic education program have to be considered to protect negative consequences by online piracy.

Keywords : copyright education, ethical consciousness, moral judgement, piracy intention

† 정 회 원: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 정 회 원: 숭의여자대학교 경영과 조교수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3년 06월 21일, 심사완료: 2013년 08월 29일, 게재확정: 2013년 09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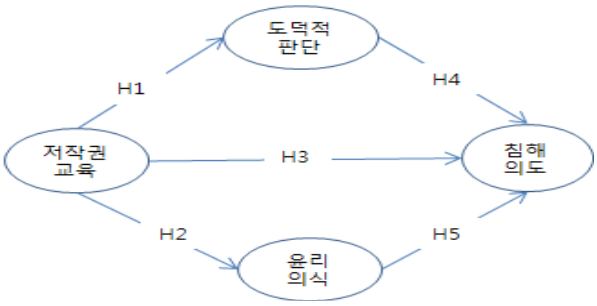
1. 서 론

네트워크 기술과 활용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었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공유,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하지만, 불필요한 정보의 범람과 불법적인 정보유통, 무분별한 정보활용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저작물들이 정당한 허가나 대가없이 무분별하게 사용, 유포되고 있다.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상품의 불법 다운로드 및 복제에 대한 피해는 콘텐츠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한국문화관광 연구원이 2010년 발표한 피해규모는 2010년에 음악, 영화, 출판, 게임 등 콘텐츠 산업 전체 2조억원이 넘는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되었다[6]. 또한, 이러한 불법복제 및 다운로드 행위는 각 콘텐츠 산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하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해외로 팽창해 가는 콘텐츠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듯 인터넷 상의 지적 재산권 침해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양상 시키며 쉽게 근절되고 있지 않다. 많은 연구자들은 급격한 네트워크의 발전과 쉽고 빠른 정보의 활용에 비해 인터넷상에 공유되고 있는 정보의 보호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크게 뒤쳐지고 있는 실정을 원인으로 언급하고 있다[3][5]. 이러한 정보교육과 윤리인식의 부재로 인해 대부분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온라인상의 정보 및 저작물을 다운로드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불법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별다른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가 개인적, 경제적 피해를 양상 한다는 심각한 문제점은 대부분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9][23][28]. 정보통신 분야에서 우수한 국가로 자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불법복제는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고 온라인 윤리교육 및 저작권 교육은 현저히 미비한 실정이다. 2006년 중반 이후 정부산하 단체에서 인터넷 예절, 저작권 교실 등의 저작권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회성이거나 일시적인 홍보 등으로 미미하게 진행되고 있고 참여 학생들의 윤리의 및 저작권 인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10]. 인터넷과 네트워크의 발전에 따른 역기능인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콘텐츠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온라인 활용에 대한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이러한 해결책으로 인터넷 윤리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이 각 계층의 교육기관에서 대두되고 있다. Cheng et al.[14]은 그의 논문에서 디지털 저작물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되는 법규나 규제 등 물리적인 처벌보다는 저작권 침해의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기 및 요인 등을 이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또한,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인식 및 옳은 사용에 대한 사용자 인식의 변화가 온라인상의 저작물 침해를 예방하는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저작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연구는 저작권 침해의도에 대한 잠재요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1][11][17], 근본적인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저작권 침해의도에 미치는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저작권 교육이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사용자의 윤리의식과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직접적인 온라인 저작물 침해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인터넷 상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방법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설정

인터넷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저작물을 다운로드, 배포, 재생산 하거나 복제하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말한다[19]. 이러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도는 기본적으로 올바른 저작권 교육을 통한 저작권 윤리의식과 도덕적 판단의 고취를 통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저작권 교육이 침해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그림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실증적인 인과관계 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온라인 저작권 교육은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심어주고 쉽고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도덕적 판단을 형성시킨다. 또한, 인터넷윤리 교육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용자의 지식과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 침해에 대한 윤리적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다[3]. 온라인상의 저작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교육이 수반되었을 때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도덕적인 올바른 판단과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갖을 수 있게 된다[8]. 청소년 저작권 교육효과에 대한 비교연구에서도 저작권 교육을 받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온라인 저작권에 대한 인지, 가치 및 지식이 높고, 실천적 태도나 실제 행동에서 긍정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2].

사용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은 사용자의 태도나 인식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며[26],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점을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인식하는 것은 사용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23][28]. Ajzen[12]은 윤리 교육 및 환경조건은 특정한 행위의도를 억제하는 중요한 요인을 강조하였고,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온라인 저작권에 대한 이해 및 윤리교육은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덕적 판단과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침해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 온라인 저작권 교육은 저작물 침해에 대한 사용자의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온라인 저작권 교육은 저작물 침해에 대한 사용자의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온라인 저작권 교육은 사용자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행동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은 개인의 윤리의식에 기반을 둔다[15][22].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다운로드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침해를 경향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적다는 연구결과도 있다[20]. Thong et al.[27]도 소프트웨어 침해에 대한 윤리적인 행동의도는 윤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음원산업을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서는 개인의 태도 및 판단은 음악 산업에서 불법 음원다운로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15]. 한정희와 장활식[11]의 연구에서도 인지된 윤리의식과 윤리적 판단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또한, 저작권 침해를 연구한 Moore와 Chang[22]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의도는 개인의 판단에 의해 시작된다고 말하며, 윤리의식 정도와 소프트웨어 침해의도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주장한다[19]. Banerjee[13]도 사용자의 의도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윤리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행동의도는 인터넷상의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사용, 유포하거나 침해된 저작물을 구입하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침해의도에 미치는 잠재적인 윤리의식 및 도덕적 판단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행동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저작물 침해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윤리의식은 저작물 침해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온라인 저작물 침해에 대한 사용자의 도덕적 판단은 침해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온라인 저작물 침해에 대한 사용자의 윤리의식은 침해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 자료의 수집

3.1 설문항목의 개발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교육이 저작권 침해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변수는 온라인 저작권 교육, 저작권 윤리의식, 도덕적 판단과 저작권 침해의도이다. 각 변수의 정의와 측정 자료는 기존 문헌에 사용되었던 변수를 적용하였다. 이 연구의 독립변수인 저작권 교육은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육과 관심 정도로 정의하고, 저작권 교육의 문항은 "학교 및 기관에서 온라인 저작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자주한다", "저작권 교육 방침이 우수하다" 등으로 개인이 느끼는 또는 경험한 저작권 교육 정도로 측정하였다[21]. 종속변수인 저작권 침해 의도는 "사용자가 인터넷상의 저작물을 침해하려고 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앞으로 인터넷에서 디지털 저작물을 침해할 의도가 있다", "디지털 저작물을 침해하는 행동을 할 의향이 있다" 등으로 설문하여 반대로(Reverse)로 측정하였다[25].

또한, 온라인 저작권 교육이 저작물 침해의도에 미치는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한 매개변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저작권 윤리의식이다. 저작권 윤리의식은 온라인상의 저작물 침해에 대한 개인의 윤리적 의식정도로 정의하며[17], 온라인 저작물 침해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인식하는 정도, 개인적인 윤리기준에 어긋나는 행동 정도 등으로 측정하였다. 도덕적 판단은 Limayem et al.[21]이 제시한 특정한 행동에 대한 개인의 기쁨, 슬픔, 실망 등의 정도로 정의하고 "디지털 저작물을 침해하는 행위는 재미있다"(-), "디지털 저작물을 침해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디지털 저작물을 침해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등 온라인 저작물 침해에 대한 개인의 감정 및 도덕적 판단 정도로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한 변수의 모든 문항은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2 설문자료의 수집과 특성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인터넷사용이 가장 활발한 계층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컴퓨터개론 및 정보시스템 등의 과목을 수강하는 경영학과 학생을 중심으로 설문하여 기본적인 인터넷 사용과 온라인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 총 241부의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수집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126(52.3%)로 여학생 115(47.7%)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자신의 컴퓨터 활용능력에 대해 중급 이상으로 판단한 학생이 90%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인터넷 활용시간은 하루에 1-3시간 정도로 활용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67.2%로 가장 많았고, 4시간 이상 사용하는 학생의 비율도 22.8%를 차지하였다. 표본특성에 따른 ANOVA검증 결과, 인터넷 활용능력, 사용시간 등은 저작권 침해의도에 대한 응답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연구 방법 및 가설검증

4.1 측정모형 검증

온라인 저작권 교육이 저작권 윤리의식, 도덕적 판단 및 저작권 침해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위해 SmartPLS를 통한 PLS(Partial Least Squares) 분석을 실시하였다. PLS는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에 대한 실증적 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고, 경로계수를 통한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 개발의 초기단계에서의 탐색적 연구에 많이 활용된다[16].

각 가설에 대한 검증에 앞서, 측정변수에 대한 개별항목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별적인 측정항목의 요인 적재값과(factor-loading) 교차 요인 적재값을 측정하였다.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 항목의 요인 적재값이 0.7이상이고, 교차되는 요인 적재값이 해당 항목의 값보다 작게나타나 각 변수를 측정한 개별 항목은 유의적으로 타당함을 확보하였다[16].

<표 1> 개별 측정항목에 대한 요인 적재값과 교차요인 적재값

	교육	도덕적판단	윤리의식	침해의도
교육1	**0.865646**	-0.103994	0.097794	0.015546
교육2	**0.962096**	-0.231631	0.084778	0.051108
도덕적판단1	-0.079501	**0.815626**	-0.128856	0.368461
도덕적판단2	-0.213274	**0.883349**	-0.105245	0.313677
도덕적판단3	-0.234639	**0.895741**	-0.099117	0.318276
도덕적판단4	-0.163394	**0.87059**	-0.093928	0.312891
윤리의식1	0.061334	-0.081015	**0.961608**	-0.295651
윤리의식2	0.149039	-0.182945	**0.613926**	-0.056974
의도1	0.104567	0.138039	-0.22707	**0.778531**
의도2	0.118568	0.111962	-0.172929	**0.7885**
의도3	-0.038151	0.484581	-0.237415	**0.857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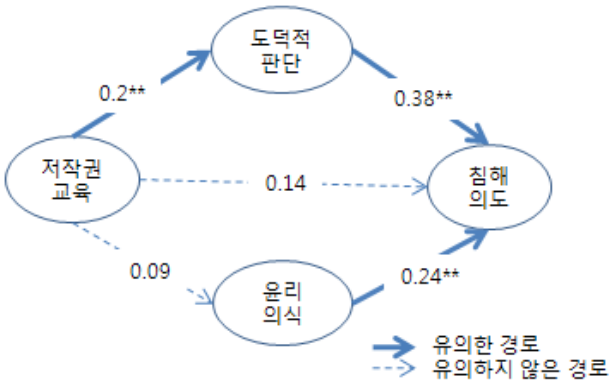
더불어, 각 변수의 내적 타당성 및 판별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측정변수의 내적 타당성은 성분 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로 측정하였고, 신뢰성 지수 0.7이상으로[16]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판별 타당성은 평균 분산추출값(AVE)(>0.7)을 통해 측정하였고, Fornell et al.[18]이 제시한 것과 같이 AVE 제곱근 값이 0.7이상이고 다른 상관관계 값보다 크게 나타나 각 측정 변수의 판별 타당성이 기준값에 부합된다. <표2>에서 판별타당성 대각선의 값이 AVE 제곱근값을 나타낸다. 또한 각 변수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크론바하 알파값은 모두 0.7이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표 2> 신뢰성 및 판별타당성 검증

	내적 타당성	크론바하 알파	판별타당성			
			1	2	3	4
1. 저작권교육	0.91	0.82	0.92			
2. 도덕적판단	0.92	0.89	0.2	0.87		
3. 윤리의식	0.78	0.74	0.09	0.12	0.81	
4. 침해의도	0.85	0.78	0.04	0.38	0.27	0.81

4.2 구조모형 검증

이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해 각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모형 분석을 통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종속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값은 저작권 침해의도가 0.212로 저작권 교육, 도덕적 판단, 저작물 침해에 대한 윤리의식에 대한 설명력을 21%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2> 가설검증 결과

<그림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저작권 교육은 사용자의 도덕적 판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만(path coefficient = 0.2, $p < 0.01$), 저작권 윤리의식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ath coefficient = 0.09).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저작권 윤리의식은 각각 t값 4.14, 2.98로$p<0.01$수준에서 저작권 침해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작권 교육이 침해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t값 1.58($p=0.058$)으로 $p<0.01$수준에서 저작권 침해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 결과에서 저작권 교육이 직접적으로 사용자 의도 및 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도덕적 판단을 통해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저작권 교육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용자의 인지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직접적인 행동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기존연구와 일치한다[3]. 이러한 결과는 저작권 교육이 의도 및 행동에 대한 판단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저작권에 대한 윤리의식을 고취한다는 점에서는 교육제도 및 프로그램 등의 전문성, 구체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저작권 교육이 윤리의식과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2와 3을 제외한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표3>은 각 변수간의 경로계수와 t값을 요약하고 있다.

<표 3> 가설검증

	경로		경로계수	t값
H1	저작권교육	도덕적판단	0.2	2.445*
H2	저작권교육	윤리의식	0.09	0.896
H3	저작권교육	침해의도	0.14	1.581
H4	도덕적 판단	침해의도	0.38	4.141**
H5	윤리의식	침해의도	0.24	2.988**

* $p<0.05$, ** $p<0.01$

5. 결론 및 시사점

정보통신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이 급격히 성장하고 인터넷의 활용의 빈도가 높아지면서, 인터넷 활용이 생활의 편리성, 정보의 윤택성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정보의 도용, 확대 재생산, 저작물 침해 등 여러 가지 피해를 동시에 양상하고 있다. 특히 정보 및 자료에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 활용,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 온라인 콘텐츠의 저작물 침해에 대한 피해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온라인 저작물 침해를 방지하고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 교육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및 지원이 부족하고, 다양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접근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상의 저작권 교육이 도덕적 판단, 저작권 윤리의식 및 침해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설문을 통한 실증적 연구 분석결과, 저작권 교육은 저작권 침해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옳지 않다는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도덕적 판단에 의해 실질적인 침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침해의도에 대한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저작권 교육은 침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윤리의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및 교육기관의 저작권 교육에 의해 온라인상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행위가 단순히 나쁘다거나 잘못된 행위라는 것은 도덕적인 판단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그로인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윤리적인 기준에 어긋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victimless), 악의 없는(harmless) 행동으로 인식한다는 문제점을 제시한 기존 문헌과 연관된다[7][28]. 또한, 이러한 결과는 학교 및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순한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이해와 홍보, 이론적 교육으로는 온라인 저작물 침해에 대한 죄책감이나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인식을 크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저작권 침해 사례 및 문제점 등에 대한 경험과 토론 등의 학습방법으로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하고, 실제적인 저작물 창작, 이용 등 실습 및 체험활동 등을 통해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접근법과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정보통신분야에서 최강국으로서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따른 편리성과 혜택을 강조, 부각하는 것에 비해 인터넷의 올바른 사용과 정보의 건전성, 윤리와 온라인 사용에 대한 교육에는 소홀한 편이다. 특히 온라인상의 음악, 영화, 문서, 프로그램 등 저작물들의 불법적인 유통과 재생산은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면서 정부 산하기관 및 여러 단체, 교육기관에서 온라인상의 저작물 보호에 관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지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처벌과 규제강화 등으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다. 정작 온라인 저작물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온라인 저작권 교육 및 윤리교육은 체계가 없고 교육내용이 미흡하거나 전문 강사 부족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온라인 저작권교육이 저작물 침해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저작권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을 활용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인터넷에서의 윤리교육 및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 청소년 85%가 학교교육을 통한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문결과를 보면,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작권 교육이 미비하고 체계

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4]. 단순한 저작권 내용의 지식전달 뿐 아니라 활동 중심의 학습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로 인해 올바른 인터넷 사용과 에티켓을 이해하고, 인터넷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윤리적인 의식을 기반으로 합법적이고 올바른 정보를 선별, 사용할 수 있는 인식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부 교육기관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관련기관에서 의도적으로 실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9]. 특히, 만화, 체험학습 등 청소년 및 다양한 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저작권 교육콘텐츠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이러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저작권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가 현장에서 교육하는 경우는 드문 실정이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적극적이고 활발한 저작권 교육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온라인 저작권 교육의 중요성과 온라인상의 윤리의식 고취 등을 강조하고 교육관련 종사자 및 지도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저작권 교육 확대, 저작물 침해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성, 전문 인력 발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단편적인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교육도구, 교수 법 등 저작권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론을 측정,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향후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저작권 교육내용과 방법의 차이에 따른 저작권 윤리의식과 판단, 행동의도 등의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 저작권 교육의 전과 후의 인식과 행동의 차이점을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study)를 통해 조사하여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과 방법론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지 알아볼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미량, 김덕정 (2012). 학생들의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15**(3), 49-59.

[2] 김혜진 (2011). **청소년 저작권 교육 효과에 대한 비교 연구: 저작권 교육 지정 학교와 일반 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3] 강성희 (2013). 대학 인터넷윤리 교육 전후의 인지, 정의, 행동 영역별 비교(저작권 침해 중심으로). **컴퓨터교육학회지논문지. 16**(1), 43-50

[4] 김정완 (2010). 청소년 85%, 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 필요'. **보안뉴스.** 1월 17일자

[5] 장윤재, 김동형, 김한성, 이원규, 김현철 (2011). 정보보호 교육을 위한 언플러그드 활동의 개발 및 유용성 평가,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14**(1), 55-67.

[6] 정상철, 정헌일, 옥성수, 박기범 (2011). 콘텐츠 불법 복제 감소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12월.

[7] 최은지, 김광용 (2009). 온라인 디지털 불법복제 단속이 불법복제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계간저작권.** 여름호. 25-48

[8] 임상수 (2003). 정보윤리교육의 방법론 모색, **윤리연구. 54**, 261-291.

[9] 이혜연 (2006). 청소년 정보통신 윤리교육 현황과 활성화 방안, **정보처리학회지. 13**(1), 34-44.

[10] 한 호 (2008). **문화강국 초석 다지기 학교가 먼저.** 새교육. 한국교육신문사.

[11] 한정희, 장활식 (2007). 인터넷에서의 디지털 음악 저작권 침해 행동에 관한 연구. **정보시스템 연구. 16**(1), 135-158.

[12] Ajzen, I. (2002).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2*(4), 665-683

[13] Banerjee, D., Cronan, T. P., &Jones, T. W. (1998). Modeling IT Ethics: A Study in Situatonal Ethics. *MIS Quarterly, 22,* 31-60.

[14] Cheng, H. K., Sims, R. R., &Teegen, H. (1997). To purchase or to pirate software: an empirical study.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13*(4), 49-60.

[15] Chiou, J. S., Huang, C. Y. &Lee, H. H. (2005). The antecedent of music piracy attitudes and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Ethics,. 57*(2), 161-174.

[16] Chin, W. W. (1998). The partial least squares approach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odern Methods for Business Research*. 295-336.

[17] Cronan, T. P. &Al-Rafee, S. (2008). Factors that Influence the Intention to Pirate Software and Media, *Journal of Business Ethics, 78,* 527-545.

[18] Fornell, C. &Larcker, D.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 39-50.

[19] Kini, R. B., Ramakrishana, H. V. & Vijayaraman, B. S. (2003). An Exploratory study of moral intensity regarding software piracy of students in Thailand, *Behaviour and Information Technology, 22*. 63-70.

[20] Loch, K. D. &Conger, S. (1996). Evaluating ethical decision making and computer use, *Communication of ACM, 39*(7), 74-83.

[21] Limayem, M., Khalifa, M. &Chin, W. W. (2004). Factors Motivating Software Piracy: A Longitudinal Study. *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ement, 51*(4), 414-425.

[22] Moores, T. &Chang, J. C. (2006). Ethical decision making in software piracy: initial development and test of a four-component model. *MIS Quarterly. 30*(1), 167-180.

[23] Moores, T., Nill, A., &Rothenberger, M. (2009). Knowledge of Software Piracy as an Antecedent to Reducing Pirating Behavior, *Journal of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Fall*, 82-89.

[24] Moores, T. &Esichaikul, V. (2011). Socialization and Software Piracy, *Journal of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Spring*, 1-9.

[25] Peace, A. G., Galletta, D. F., &Thong, J. Y. L. (2003). Software Piracy in the Workplace: A Model and Empirical Test.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20*(1), 153-177.

[26] Siemens, J. C. &Kopp, S. W. (2006). Teaching Ethical Copyright Behavior: Assessing the Effects of a University-Sponsored Computing Ethics Program. *NASPA Journal, 43*(4), 112-126.

[27] Thong, J. Y. L. &Yap, C. S. (1998). Testing and ethical decision-making theory: The case of softlifting,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15*(1), 213-237.

[28] Wall, D. S. (2005). *The internet as a conduit for criminal activity,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s,* edited by Pattavina, A.,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78-94.

박 주 연

1998 조지워싱톤대학교 정보시스템(석사)
2005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박사)
현재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관심분야: 컴퓨터교육, 정보시스템성과. 지적재산
E-Mail: park3500@naver.com

정 승 민

1990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문학사)
2000 서강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석사)
2005 연세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현재 숭의여자대학교 경영과 조교수
관심분야: 정보시스템 교육 및 성과, e-비즈니스
E-Mail: jungsm@sewc.ac.kr